주말 쇼핑

올 봄 트렌드는 원피스

더 밝고 더 화사하게 '여심유혹'

'밝고 화사하게'.올 봄 원피스의 트렌드다.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원피스가 화려한 원색의 무늬에다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고, 가격대비 활용도까지 높아 벌써 여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때 연노랑 원피스를 선보인 뒤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40대 중년층에서도 원피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김영제 여성팀장은 "올 봄 원피스는 옐로 계열의 밝고 화사한 컬러와 가벼운 쉬폰 소재가 대세"라고 말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화사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찾고 있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미니원피스가 인기라고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내게 어울리는 원피스 골라보자.

이월상품 최고 50% 세일, 5만~6만원대 인기

20대 미니 원피스·40대 화려한 색상 각광

◇여심 잡기 나선 유통업체=지역 대형 유통업체가 원피스 특집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다음달 2일까지 '원피스 페어'을 연다. '데코'와 '린' 은 기획상품으로 9만~14만원대 원피스를 내놓았고, '스위트 숲' '라인' '나이스크랍' 등에서는 5만~8만원대 원피스를 준비했다.

'아나카프리' '제시뉴욕' 등 여성 캐주얼 브랜드도 대거 참여한다. '르샵' '인베스트'는 노랑과 주황, 초록 등 화사한 색의 미니원피스를 5만~6만원대에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베스띠벨리' 'SI' '시즈막스' 등 여성의류 브랜드가 5월 말까지 20~30% 할인행사를 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봄 패션 페스티벌'을 열고 '미샤' '빈폴' '레니본' 등 유명브랜드 이월상품을 30~50%까지 할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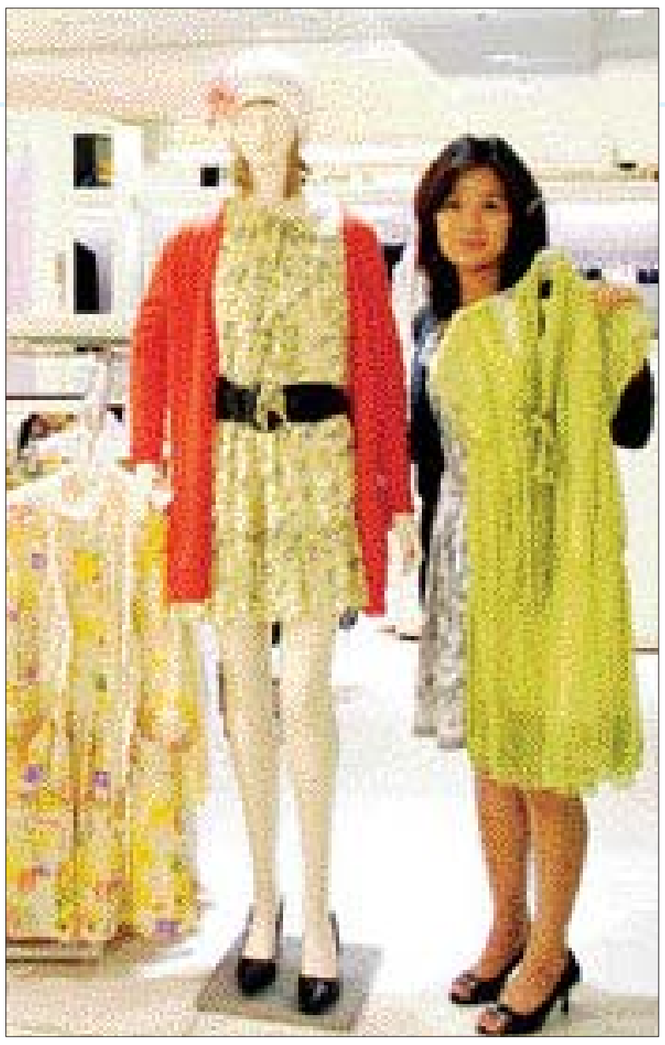
◇나이에 상관없이 화사하게=20대는 꽃무늬 등 화려한 무늬의 미니원피스에 짧은 카디건이나 스카프, 레깅스 등을 활용해 발랄하게 멋을 내는 것이 좋다.

30대는 하늘거리는 소재에 잘 어울리는 옐로, 그린, 핑크, 아이보리 등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의 색상을 선택하면 깔끔하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40대의 경우 물세탁이 가능하고 활동이 편안한 면 소재의 원피스가 좋다. 대신 화려한 색상을 선택해 포인트를 주고 얇은 벨트를 활용해 몸매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한다.

또 목선이 드러나는 원피스에는 스카프가 어울리며 구두, 가방, 벨트를 비슷한 계열 색상으로 맞춰 통일감을 주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6일 오후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를 찾은 여성이 미니원피스를 보고 있다. 불황일수록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말을 입증하듯 올 봄에는 미니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백화점은 세일중

오늘부터 유명브랜드 할인 판매

광주시내 주요 백화점들이 27일부터 일제히 '브랜드 세일' 행사에 들어간다.

브랜드 세일은 4월 3일 시작되는 봄 정기세일에 앞서 세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진행하는 판촉행사로, 세일기간 초반에 방문하면 평소 찍어둔 제품을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부터 31일까지 '남성정장·캐주얼 3·5·7만원 파격가 대전'을 열어 남성재킷과 코트를 판매한다. 또 실크로드, 가피, 프리밸런스 같은 유명브랜드가 정상가의 20~30%를 할인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29일까지 LG전자 휘센 에어컨을 154만원, 삼성전자 하우젠 세탁기 90만원, 동우꽃돌침대 줄리아를 169만원에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불황 장기화 위스키 소비 급감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 26일 위스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위스키는 모두 18만3천 상자(1상자당 8병)로 지난해 2월에 비해 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달 임페리얼 17년산 판매량은 8천300상자에 그쳐 지난해 2월에 비해 무려 3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윈저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윈저 17년산 판매량은 4만8천 상자로 지난해에 비해 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기아차 '쏘울' 패션쇼 나들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패션쇼인 서울컬렉션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든 쏘울이 패션모델들과 함께 미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기아차는 전 세계 패션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사의 디자인 경영을 알리고 쏘울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제공〉

공공공사 발주 확 바뀐다

내년부터 턴키공사 설계 발주기관 자체 심의

일반-전문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도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 심사 주체가 전문가 집단에서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로 바뀐다. 또 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가격 심사 제도가 강화되는 등 공공공사의 발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턴키(설계, 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아니라 공기업,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천명에 달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과 부실, 건설업체의 로비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내에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60~8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 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의 턴키 심의를 대신해주기로 했다.

새로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 관련 비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외에도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도 시범 도입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은 부적격 업체가 참가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덤핑입찰 업체에게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 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업종간 영업제한에 걸려 단순공사라도 반드시 종합건설회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줘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청업체로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가장 싼 금액을 써낸 입찰자부터 저가 입찰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줘 건실한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가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40% 이상이면 최대 12%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앞으로 있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해당 지역업체 시공 참여 가점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지역의무대상 공사(공사액 76억 미만 공사) 외의 국가기관 공사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최대 8%까지 가점을 부여해 왔다. /연합뉴스